

조선 후기 상류주택 사의당(四宜堂)의 공간체계와 조경문화*

신상섭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Space Organization and Landscape Culture on Upper-class's House('Saidang') in Late Period of the Joseon

Shin, Sang-Sup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By studying 'Saidangzi' written by Honggyungmo(1774~1851), this paper shows on the locati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the landscape culture of 'Saidang' which was upper class's house in late period of the Joseon.

Saidang was the residence of about 530 kan(about 1,750m²) which was given to Jeongmyunggongju(daughter of Sunzo) by Injo when she married with Hongjuwon, located at the good place where Mt. Mokmyuk, Mt. Dobong, Mt. Inwang, and Janwon peak are harmonized all together. The residence was on the foothill of Mt. Mokmyuk, facing to the northeast. The main house was facing to the east with the inner and back yards, and the separate house(Saidang) was facing to the west with the garden, and a vegetable field was set in the outer yard where is connected with a main road where willow trees were lined up, 'Saidang' was called as "the garden of princess", and a stair-shaped flower garden was made to the south, and one could look down the Hanyang castle as a whole. In the garden, there were trees and house plants enriching one's mind to wish an eternal life with oddly shaped stones or flowers, and symbolizing a fairly land. There were 38 types of trees that were planted either on the ground or in pots as various bundles like 1 tree, 2 trees, 3 trees, 4 trees, 5 trees, 8 trees, and 9 trees. Taehosuk, oddly shaped stones, stone panels, stone pillars, jade panels, sundial, walls and fences, stone stairs, steppingstones, and buildings were set for the landscape. Also, the residence had rare luxuries of landscaping culture like Wangheej's Nanjungsoogyeseo, Sosik's Cheeongjeongi, Jomangboo's Jeokbyukboo, and Anpyungdaegoon's Behaedangcheop.

Key Words : Saidang, Landscaping Culture, Stair-shaped Flower Garden, Oddly Shaped Stone

국문초록

홍경모(1774~1851)가 기술한 '사의당지'를 원전으로 조선시대 후기 경화세족의 저택 '사의당'의 입지와 공간구성 체계 및 조경문화를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의당은 정명공주(선조의 딸)가 홍주원과 혼인한 후 인조에게 하사받은 대지면적 530여칸 규모(약 1,750m²)의 저택으로 목멱산, 도봉산, 그리고 인왕산과 장원봉이 풍수적 사신사 구조를 이룬 생룡형(生龍形) 길처에 자리했다. 한양 남부방 목멱산 아래 북동향으로 자리하였는데, 동쪽에 본채(정당) 영역을 설정하여 안뜰과 후정을 가꾸었고, 서쪽에 별당 영역(사의당)을 설정하여 원림을 조성했으며, 바깥마당은 채원을 일구어 버드나무가 줄지어 심어진 큰길과 연결되었다. 사의당을 심원(沁園: 공주의 원림)으로 비유하였고, 남쪽으로 화원과 화계가 어우러진 원림을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Sup, Dept. of Landscap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Jeonbuk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2, E-mail : ssshin@woosuk.ac.kr

가꾸었으며, 북쪽으로 한양성 안팎을 부감(俯瞰)할 수 있었다. 뜰에는 정심수와 분경(盆景)을 가꾸었고 괴석과 화목 등으로 불로장생을 염원하거나 신선경의 세계를 상징화 하는 등 정신세계의 풍요를 추구했다. 식재 수종은 38종이 도입되었는데, 직접 나무를 땅에 심는 지종(地種)과 화분에 가꾼 분종(盆種)으로 구분하였고, 1점식, 2점식, 3점식, 4점식, 5점식, 8점식, 9점식 등 다양한 식재가 이루어졌다. 조경시설 요소로 태호석, 괴석, 석대(石臺), 석주(石柱), 옥대(玉臺), 석구(일영대), 담장과 울타리, 석계(石階), 섬돌, 누(樓) 등이 도입되었다. 한편, 왕희지의 난정수계서, 소식의 취옹정기, 조맹부의 적벽부, 안평대군의 비해당첩 등 조경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진귀한 명품을 소장하며 즐겼다.

주제어 : 사의당, 조경문화, 화원, 화계, 괴석

I. 서론

조선의 18세기는 정보의 집적과 문헌 정리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사회와 문화 전반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편찬하는 일이 크게 유행하였고, 자신의 집안과 관련한 주거공간에 대한 자료를 모아 편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문화사적 흐름을 이어받아 홍경모(1774~1851)는 자신의 집안과 땅에 대한 지(志)를 편찬하였는데, 6대째 살던 사의당 기록을 모아 '사의당지(四宜堂志)'를 편찬하였다(이종목, 2008).

'사의당지'의 편제는 원서, 당우, 형승, 조망, 화석, 서화, 기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의당의 연혁과 자리잡기, 주택에 대한 공간 구성과 규모, 경관적 의미와 조망, 원림에 도입된 조경식물과 점경물, 그리고 서화 및 기물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편제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주거공간을 기록한 저술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조선 후기 상류계층이 경영한 대저택의 공간구성 및 원림과 관련한 조경문화 추적이 의미있는 사료로 판단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집에는 자연환경과 함께 시대에 따른 가치관, 제도, 생활문화 등 다양한 면이 반영되었다(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주택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련의 주거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의 제도이고, 또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적 현상이므로 형태나 조직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주거공간은 그 사회, 문화의 한 형태적 표현으로, 형태를 배태하게 된 시대적 사회, 경제, 사상,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기주와 김성우, 1989). 그동안 전통시대와 관련한 주거 공간 연구는 건축과 조경분야에서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조경학적 측면에서 현존하는 정원의 물리적인 형태와 구조, 배후사상과 조경문화, 조경소재와 작정미학, 취경기법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거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사의당지'와 같은 주거와 조경문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인문학 분야에서 발굴, 번역되었는데, '사의당지'는 조선 후기 경화세족(京華世族)이 경영했던 대저택

의 토지이용과 조경문화에 관한 전반을 추적할 수 있는 독보적인 사료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의당지'를 원전으로 사의당의 입지체계와 토지이용, 그리고 뜰에 도입된 조경요소 등을 분석하여 당시 상류계층 살림집의 조영성 및 조경소재와 공간구성 체계 등 원림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축적에 목적이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분석에 이용된 사료로는 '사의당지'가 활용되었는데, 이종목의 사료 발굴 및 번역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즉, '사의당'의 6대 가주 홍경모는 '사의당지'를 편찬하였는데, 그의 문집인 '관암전서'에 실려 있다. 한편, 사의당의 자리잡기와 공간구성, 조경문화 등을 추적하기 위한 선행연구 자료로는 이종목(2008)의 논문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그리고 이종목(2009)의 번역서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에 근거하였다.

'사의당지' 원전과 번역본에 근거하여 사의당의 입지체계와 토지이용, 그리고 뜰에 도입된 조경소재와 공간 성격 등 조경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는 '사의당지'와 인터넷 관련 자료 및 도면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한편, 유사 사례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 토지이용 체계를 도식화 한 후 경관구조 및 공간구성 그리고 조경문화를 추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결론에 이르는 진행과정은 ① 사의당의 입지 연혁과 시대상황, 그리고 남양 홍씨 관련인물, 인평대군방전도 등 연구사 분야를 추적하고, ②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체계도를 도식화 하며, ③ 도입된 경물소재, 취경기법 등을 추적한 후 유형화 하고, ④ 사의당의 공간체계와 조경문화 등을 고찰하여, 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택하였다.

III. 사례 연구 : 인평대군방전도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동국여지비고' 제택조에 "인평대군의

집은 건덕방 낙산 아래에 용흥궁과 동서로 마주 하고 있는데, 석양루가 있다. 기와·벽 등에 그림이 새겨져 있으며, 규모가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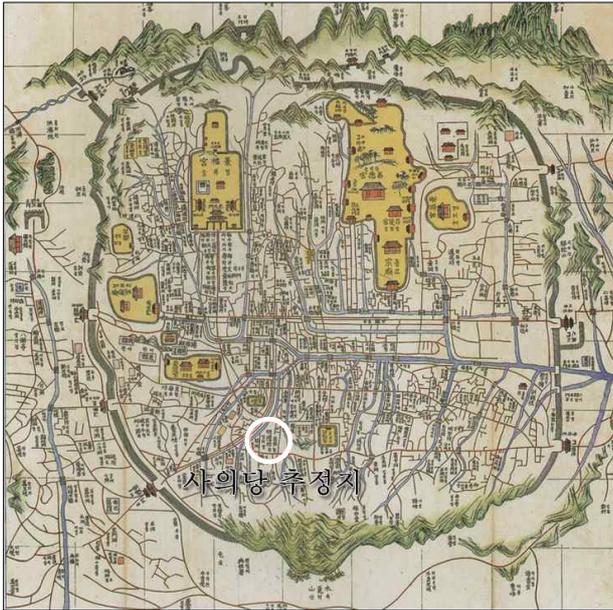


그림 1. 한성부지도(1900년, 아시아왕립협회)
사의당은 남산 북서쪽 명례방(오늘날 명동, 붉은색 원형)에 자리했다.

고 화려해 장안에서 으뜸가는 집이었다.”고 쓰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를 보면 1641년에 지어진 인평대군(1622~1658, 효종의 동생)의 저택(상)과 효종(1619~1659)의 잠저(하)인 용흥궁 궁집(서울 효제동)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왕족이 경영한 궁집은 장방형 형태로 터를 잡아 행랑과 담장으로 구획하여 사랑채와 안채 영역을 사잇담과 익랑 등으로 연결했다. 특히,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평면구조는 해와 달(日, 月), 그리고 구(口)와 품(品), 길(吉)자 등의 형태를 취하여 기를 모으는 길처(吉處)로서의 상징성을 표출하였는데, ‘인평대군방전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각 건물에는 네모반듯한 마당을 두고 정심수(소나무, 매화나무) 등 상징 식물을 도입했으며, 화원과 화계를 일구어 후원의 자연원생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의당은 인평대군의 궁집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 궁실 가족이 경영한 대 저택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건물규모와 구성형식, 마당과 뜰의 조성 등에서 상당히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과 및 고찰

1. 사의당과 사의당지

1) 사의당

사의당은 한양 남부방 이현(진고개)에 자리한 남양 홍씨 집안의 저택으로, 오늘날 서울 충무로 2가 중국대사관 뒤 언덕길에 해당된다. 정명공주(1603~1685, 선조의 장녀)가 홍주원(1606~1672)과 혼인한 후 인조가 하사한 이 집은 아들 홍만회(1643~1709)에게 상속되었고 1671년에 중수되었으며, 홍경모(1774~1851)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쳐 153년 동안 이어온 궁집의 사례이다. 대지면적이 530여 칸 규모(영조초적 기준 약 1,750m²)인데, 건물은 크게 정침(정당과 하당)과 별당(사의당과 수약당, 징화각), 그리고 행랑 등 100여 칸이고, 원림은 서쪽과 남쪽 뜰, 안뜰과 뒤뜰, 그리고 바깥뜰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의당 남쪽과 서쪽 경사구간은 화계로 일구어 초화류와 괴석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원을 가꾸었다.

2) 홍경모와 사의당지

홍경모는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자는 경수(敬修), 호는 관암(冠巖)인데, 본관은 풍산으로 홍양호의 손자이며, 홍낙원의 아들이다. 벼슬은 육조의 판사를 두루 역임하였고, ‘중정남한지’, ‘대동장고’, ‘기사지’, ‘오주시지’, ‘국조약가’ 등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사의당지’가 그 중 하나인데, 홍경모의 저술은 대부분 ‘관암전서’에 포함되어 있다.

‘사의당지’는 홍만회(1643~1709), 홍중성(1668~1735), 홍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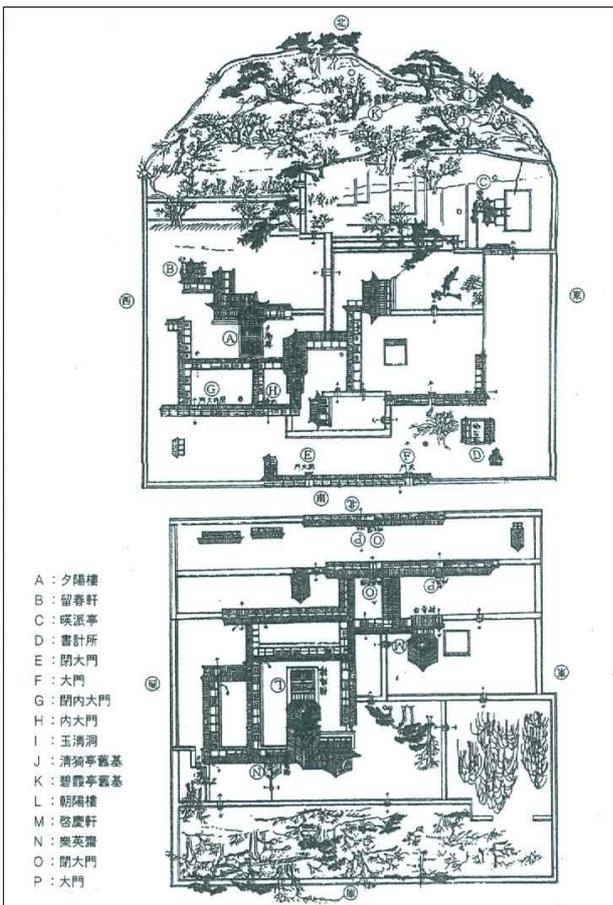


그림 2. 인평대군방전도
(자료: 주남철, 17세기)

보(1698~1736), 홍양호(1724~1802), 홍낙원(1743~?), 홍경모(1774~1851) 등 6대를 이어온 사의당 관련 주거문화 종합 보고서이다. 즉, 집의 연혁과 자리잡기, 건물의 구조와 위치, 형승과 조망, 원림, 그리고 소장한 서화 및 기물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편제는 원서, 당우, 형승, 조망, 화석, 서화, 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서>에는 사의당의 연혁과 자리잡기 등을 개괄했고, <당우>에는 정당, 사의당, 별당 등 건물의 위치와 규모 등을 설명하며 상량문을 병기했다. <형승>에는 집과 택지를 가리는 상택(相宅)을 다루었고, <조망>에는 명소 경관과 사계절 풍광을 기술했다. <화석>에는 조경수목과 분재, 괴석 등의 위치와 수량, 현존 여부 등을 설명하였고, <서화와 기원>에는 탐본과 서화첩, 약기, 자명종, 괴석, 투호 등 소장한 기물의 유래와 특징을 기술했다.

2. 사의당의 공간구성과 조경문화

1) 개관

가사분급 규제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논란이 되는 것은 왕자나 공주 등 왕실 가족의 집이었다. 왕이 자녀들의 집을 제도 규모보다 더 크게 지어주려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100칸을 넘는 집들이 다수 있어서 180칸이 넘는 집도 있었으며, 구례 윤조루의 경우도 80여칸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렇게 보면 가사 칸 수 제한을 넘어서는 것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차이가 없었던 듯하다(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사의당의 가대면적은 530여 칸(약 1,750m²)이고, 가사(家舍)는 약 100여 칸 규모이다. 이 규모는 가사분급(경국대전)이 대군 60칸, 군과 공주 50칸, 2품 이상 40칸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과격적이다. 본체인 정당은 정좌계향(丁坐癸向, 북동향)한 건물로 20.5칸이었고, 정당 서쪽에 꾸며진 수약당(5칸)은 선비들이 시회를 열던 풍류의 장이었다. 조망이 뛰어난 사의당은 계좌정향(癸坐丁向, 남서향)한 건물로 정침 11칸, 익랑 6칸, 징회각 6칸의 규모인데, 남산에 기대어 남쪽과 서쪽에 화원을 가꾸었다.

사의당 동쪽에 세운 징회각은 곡장(曲牆)으로 둘러고, 담장

남쪽의 소나무는 사의당 동쪽 계단의 소나무와 문병(門屏)을 이루었다. 사의당의 남쪽과 서쪽 뒤편에는 측백나무와 노송이 심겨졌고, 반송, 종려, 매화나무, 배롱나무, 모란, 자목련, 백목련, 출장화, 금등화, 불정화, 흰진달래, 정향, 금죽 등이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중국에서 들여온 태호석과 괴석도 볼거리였고, 각종 서화와 골동품이 집안 여기저기에서 은은한 아취를 자아냈다(자료: <http://www.pusannews.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1700&key>)

2) 사의당 연혁: 원서(原敍)

사의당은 정명공주와 홍주원이 혼인한 후 인조의 후원으로 하사 받은 궁집이다. 정명공주는 넷째아들 홍만희에게 이 집을 상속했는데, 1671년에 집을 새로 지어 사의당이라 하였다. 목덕산(남산) 아래 북향하여, 온돌방과 시원한 마루, 루와 문, 행랑, 원(園), 정(庭), 포(圃) 등을 갖추었으며, 소나무 숲 언덕을 등지고 버드나무가 늘어선 큰 길가에 자리 잡았다.

홍만희는 정명공주를 본체에서 모시다가 어머니 사후 정묘년(1687년)에 사의당으로 이거하여 사의(四宜: 꽃, 돌, 거문고, 바둑 등)를 즐기며 은거했다. 그 후 2대 홍중성, 3대 홍진보를 거쳐 4대 홍양호(12세와 13세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망)대에 집안이 쇠락하여 1743년 남에게 팔았고, 홍양호가 진사시에 합격한 후 1747년 집을 다시 사 들었으며, 5대 홍낙원, 6대 홍경모에게 차례로 상속되었다.

1대 가주 홍만희는 당나라 이덕유가 ‘내가 죽은 후 자손들은 재주가 있으면 쉽게 지키고, 재주가 없더라도 타인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평천산장 고사를 비유하여 사의당을 자손만대까지 보호하고 지킬 것을 권하였다. 당시 조선사회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혈연상속의 원칙(경국대전 형전 사친조)이 선언되었다. 특히,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인 분재기(分財記)에는 예외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주지 말며, 만약 그렇게 하면 재산을 되찾고 그 후손은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3) 사의당 건물: 당우(堂宇)

표 1. 사의당 연혁

년도	연혁	비고
1623	정명공주(1603~1685) : 홍주원(1606~1672)과 혼인	정명공주 : 선조의 딸
?	인조(재위 : 1623~1649)가 이 책 소유의 저택 구입	정명공주에게 하사
1671	정명공주 : 4남 홍만희(1643~1709)에게 상속, 홍만희 : 사의당 신축, 이익(1629~1690) : 상량문 씌	사의당 : 꽃, 돌, 거문고, 바둑을 즐기기에 마땅한 집
1687	홍만희 입주, 정당(안채 : 20.5칸), 사의당(사랑 : 11칸, 익랑 : 6칸), 행랑(14칸) 등 100여칸 규모	정당, 수약당, 하당, 후당, 사의당, 징회각, 행랑 등
?	홍중성(1668~1735), 홍진보(1698~1736), 홍양호(1724~1802), 홍낙원(1743~?), 홍경모에게 상속	
1743	홍양호 : 사의당 매각	
1747	홍양호 : 사의당 재 구입	
1773	홍낙원 : 징회각 증수	상량문 : 홍낙원이 직접 씌
1824	홍경모(1774~1851) : 사의당지 완성	사의당지 : 7년간 편찬

사의당은 건물과 대지를 합쳐 530칸 규모인데, 흥만희가 1671년에 건물을 증축하고 사의당이라 편액했으며, 1687년에 정당 좌우측의 건물과 담장을 신축하여 정침과 익실, 하당, 행랑, 문루 등 100여 칸 규모가 되었다. 목덕산의 북쪽에 자리 잡았지만 나무와 바위가 크고 아름다우며 건물이 견실한데, 높고, 밝고 상쾌하여 빼어났다. 건물은 모두 가운데 온돌을 놓아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마루를 넓게 하여 여름에 알맞게 하였다. 마루를 온돌방보다 2배가 되도록 한 것은 옛 제도인데, 사의당은 이와 반대로 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다(이종묵, 2009).

(1) 정당(正堂)

본체인 정당은 정좌계향(丁坐癸向: 남서쪽을 등진 북동향)인데, 7개의 기둥이 이어진 20.5칸 규모이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4칸의 퇴물림 마루를 갖추었다. 서쪽의 협문을 이용하여 수약당, 사의당 앞뜰로 드나들 수 있었고, 주방에서 뒤뜰로 이어졌다. 상량문에는 ‘사치하지 않으며 검소하지도 않아 합당하고, 거처하기에 편안함이 많고, 장수하는 거복과 학의 수명처럼 즐거움이 풍성하며, 은거하고 수양하며 쉬고 노닐 수 있으며, 오랜 세월 노쇠하지 않고 영원히 창성하는 거처’이기를 염원하였다.

(2) 수약당(守約堂)

정당 서쪽에 자리한 수약당은 온돌 1칸, 마루 1칸에 북으로 3칸의 대청을 두었다. 사랑채 별당 성격의 수약당은 2대 가주 홍충성(1668~1735)이 조유수, 이병연, 김창흡, 조문명, 윤순, 홍세태 등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어우러져 시회를 펼쳤던 풍류처로 이름이 높았다. 대청마루는 사우(祠宇)로 제사를 받았었고, 동쪽으로 정당의 대청과 연결되었는데 판장으로 막았다. 남쪽에는 꽃을 심은 화계를 일구었고, 북서쪽으로 사의당 남쪽 뜰로 이어졌다.

(3) 북하당(北下堂), 서하당(西下堂), 후당(後堂)

정당 북쪽에 자리한 북하당은 온돌 2칸, 마루 1칸 규모인데, 서쪽으로 서하당이 연결하고, 북쪽에 판문이 있어 징회각 남쪽 계단과 통한다. 북하당 대청에서 꺾어져 남쪽으로 서하당이 자리하는데, 온돌 2칸, 마루 1칸 규모이며, 서쪽에 익랑 3칸을 달았다. 북쪽으로 징회각 남쪽 계단과 통하고, 남쪽으로 정당과 연결하며, 서쪽으로 사의당 뜰과 통하는데 판장으로 영역성을 부여했다. 정당 동쪽 2층 다락의 후면부에 후당이 자리하는데, 2칸의 온돌방에 2칸의 마루를 붙였다. 서쪽에서 정당의 뜰로 나갈 수 있었고, 남쪽으로 정당의 주방과 통하게 하였다. 온돌방 북쪽으로 익랑 2칸을 달았고, 동쪽으로 중문을 내어 공간으로 연결했으며, 북쪽으로 공간 끝에 측간을 두었다.

(4) 사의당

택호(宅號)이기도한 사의당(별당)은 송시열의 편액을 달았

고, 계좌정향(癸坐丁向: 북동쪽을 등진 남서향)하였는데 11칸 규모(온돌방 3칸, 대청 4칸, 툇마루 2칸, 1.5칸의 누 등)이며, 북쪽으로 6칸 익랑을 둘렀다. 서남쪽으로 화계를 가꾸었고, 동쪽에는 소나무가 덮인 계단을 두었으며, 남쪽 산기슭에 화원을 두었는데 사방이 트여있고 조망이 뛰어났다.

(5) 징회각

사의당 동쪽에 자리한 징회각은 6칸 규모인데, 온돌방 2칸, 다락과 대청이 4칸이며, 담장 서쪽 계단에는 소나무 2그루가 있어 사의당 동쪽 계단의 소나무와 시렁처럼 연결되었다.

5대 가주 홍낙원이 쓴 징회각(1773년 중수) 상량문에는 “진고개에 지은 집은 성시숙의 산림이라네. 괴석과 푸른 소나무가 난간 아래 빼어나고, 이름난 꽃과 긴 대나무가 뜰에 둘러 있다네. 삼각산이 세발 술처럼 서 있으니 문필봉의 모습이라네. 담장은 수약당과 이어지고 기와는 사의당에 접해 있다네. 실로 중앙의 그윽한 곳에 위치해 있으니 백악을 마주하고 자각봉(남산 봉우리)에 임해 있네”라 적고 있다.

(6) 행랑

정당과 사랑채를 이어주는 중문 밖에 일자형태의 행랑은 16칸 규모이다. 문밖의 대지가 안쪽보다 2배 정도 넓었는데, 노복들이 살던 곳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민가로 바뀌었다.

즉, 사의당의 공간구조는 정당을 중심으로 동쪽에 본채 영역을 설정하여 하당과 후당 그리고 안뜰과 후정을 두었으며, 정당 서쪽에 별당 영역을 설정하여 사의당을 중심으로 풍류처로 이름 높았던 수약당, 그리고 징회각과 익랑 등을 질서정연하게 도입했다. 한편, 중문밖에 16칸 규모의 긴 행랑을 두었고, 안쪽보다 2배 정도 넓은 바깥마당은 큰길과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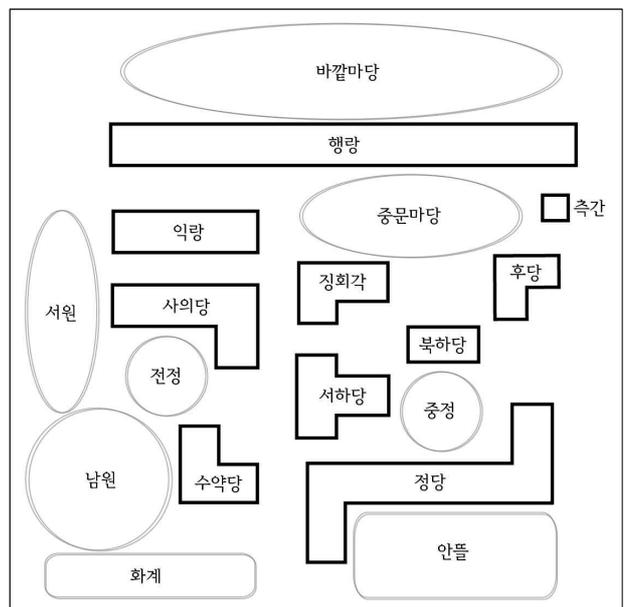


그림 3. 사의당의 공간구성 개념도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평면구조는 해와 달(日, 月), 그리고 구(口)와 품(品), 길(吉)자 등의 형태를 취하여 길처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는데, '사의당'도 이러한 양상이 유추된다. 또한 가구와 간살을 쌍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 홀수로 하는 것이 길하다 하였는데, 정당(20.5칸), 수약당(5칸), 사의당(11칸) 등 이러한 원칙이 작용되었다.

한편, 사의당을 중심으로 기화이초가 어우러진 남원과 서원 등 후원을 가꾸었고, 수약당 남면에는 경사지를 화계로 일구었으며, 소나무가 숲 높은 언덕을 등지도록 하였다. 건물들은 마당과 짝을 이뤄 음양의 접합과 같은 구성체계를 이루었고, 안뜰과 뒤뜰이 정연하게 가꾸어졌으며, 행랑채 밖에는 너른 바깥마당을 두어 실용적인 텃밭(園圃)을 가꾸었다.

4) 사의당의 자리잡기: 형승(形勝)

사의당지에 의하면 택(宅)은 길한 땅을 가려(擇) 집을 짓는다는 의미인데, 시경에 "언덕을 살피고, 음양을 살핀다"라고 했듯이 땅의 마땅함과 산천의 빼어남 등 길한 것을 가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의당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산천의 아름다운 기운이 서려 있으며, 양명할 뿐 아니라 사통팔달의 장점 등을 취하여 거처를 정했다.

동쪽으로 낙산, 남쪽으로 목덕, 북쪽으로 백악이 용처럼 날아오르고 봉황처럼 춤을 추는 지세가 모여드니, 산은 높고 골짜기는 그윽하며 흙은 굳고 물은 맑아 빼어난 아름다움이 최고로 일컬어졌다. 지세가 성글면서 높기 때문에 바람이 맑고, 아름다운 풍광이 모이니 하늘이 만들어 놓고 땅이 숨기고 있다가 넘겨준 낙토임을 기술했다. 풍수적으로 조산(祖山)인 목덕산은 천마가 누선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격이고, 안산인 도봉산은 선관(仙官)이 춤추는 형상이며, 서쪽과 동쪽으로 장하귀인인 인왕산과 장원봉이 자리한다. 산세는 서린 용과 같고, 안산은 옥대와 같아 웅장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용의 콧구멍에 혈이 맺혀 있다.

산기슭아래 땅을 넓혀 집을 짓고 담을 내었으며, 화계를 만들어 화원을 가꾸었는데, 목덕에서 발원한 물은 사의당 북쪽을 휘감아 돌아 북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간파(良破)로 나아가는 형국이다(이종묵, 2009).

이처럼 사의당의 자리잡기와 경관짜임에는 풍수적 관점과 환경심리적 상징성, 그리고 경관가치와 실용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5) 사의당의 경관구조: 조망(眺望)

사의당의 경관구조는 전면이 트여 있어 한양성 안팎을 바라보는 전망이 좋았다. 백리 원근의 산이 둘러싸여 봉황이 날아오르며 병풍을 늘어 세운 듯하다. 푸른 솔과 괴석을 조각하여 세운 듯한 목덕의 잠두봉, 용이 걸터 앉고 범이 달리는 듯 백악과 낙산이 마주 하고, 필운봉, 도봉산, 수락산, 불곡산(불암산), 모악산이 기이한 형상으로 우뚝 드러나며, 백운봉과 인수봉이

구름 덮인 하늘 끝에 우뚝 솟아 공경하고 사랑할만 하였다. 특히, 푸른빛을 모으고 파란빛을 바른 듯한 자태와 아침의 구름, 저녁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경관은 장관이었다.

목덕에 기대어 남쪽으로 화원을 꾸렸는데, 몇 길 높게 가꾸어진 장관이 빼어나고 수레가 나란히 다닐 정도로 넓은 규모이다. 사의당은 성 전체를 안팎으로 내려다 볼 수 있었고, 종묘와 사직, 경복궁과 창덕궁, 관아, 수많은 집들을 부감할 수 있었다.

봄에는 꽃들이 섬돌 위에 피어나 향기와 새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피꼬리가 울어대며 맑은 바람을 쐬고 산보하는 즐거움이 일품이었다. 가을에는 맑은 소리가 음률을 맞추고 서리가 단풍을 붉게 물들이며 국화가 향을 토해냈다. 나뭇잎이 떨어져 바위의 자태가 드러나고, 하늘과 땅 끝이 맑고, 밝게 트여 기운이 전해진다. 겨울에는 강과 하늘이 하나의 빛이 되고 아담한 운치가 흥취를 불러일으켰다.

6) 사의당의 조경문화: 화석(花石)

1대 가주 홍만희는 집을 지은 후 화원과 화계를 가꾸면서 만년의 맑은 감상거리(淸賞)로 삼았다. "꽃과 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없으니 사물의 이치"임을 언급하면서 이덕유의 평천산장에 비유하여 사의당의 나무와 바위 하나도 남에게 주거나 팔지 말라 계고하였다.

뜰에 도입된 화석은 ① 대송, ② 푸른 회나무, ③ 측백나무, ④ 노송 문병, ⑤ 원반노송, ⑥ 작은 소나무, ⑦ 반송 분매, ⑧ 종려¹⁾, ⑨ 월계화, ⑩ 사계화, ⑪ 거상화, ⑫ 진춘라, ⑬ 금전화, ⑭ 추해당, ⑮ 석양화, ⑯ 매화, ⑰ 벽오동, ⑱ 백일홍, ⑲ 영산홍, ⑳ 왜철쭉, ㉑ 모란, ㉒ 산단화, ㉓ 자목련, ㉔ 백목련, ㉕ 출장화, ㉖ 금은화, ㉗ 금등화, ㉘ 불정화, ㉙ 흰진달래, ㉚ 정향, ㉛ 금죽, ㉜ 태호석, ㉝ 괴석²⁾, ㉞ 중간 크기 괴석과 작은 괴석, ㉟ 돌거북 등이다.

특히, 사의당 뜰의 위치와 장소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고, 식재 방식과 품종 및 수량, 태호석과 괴석 등 점경물을 명기하고 있다. 즉, 뜰의 위치와 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데 ① 정당을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 남원, 서원, 전정, 후정, 남정 등으로, ② 식재는 원(園), 정(庭), 화계(花階), 화오(花塢), 화체(花砌: 꽃을 가꾼 섬돌) 등으로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식재 방식과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① 땅에 수식한 지종(地種)과 화분에 가꾼 분종(盆種: 소나무, 월계화, 사계화, 거상화, 진춘라, 금전화, 추해당, 석양화, 매화, 벽오동, 영산홍 등), ② 한그루, 두그루, 세그루, 네그루, 다섯그루, 여덟그루, 아홉그루 식재, ③ 상록수(소나무, 반송, 전나무, 측백, 영산홍, 산단화) 6종, 낙엽수(월계화, 사계화, 거상화, 진춘라, 금전화, 추해당, 석양화, 매화, 벽오동, 왜철쭉, 자목련, 백목련, 황매화, 불두화, 흰진달래, 수수꽃다리) 16종, 기타(종려, 모란, 인동덩굴, 능소화, 개당귀, 대나무) 6종이 도입되었다.

한편,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내는 파초와 종려나무, 태호석을 비롯하여 점경요소로 분재, 괴석, 석대(石臺), 석주(石柱), 옥대

표 2. 사의당에 도입된 조경요소

구분	화석(花石)	위치	수량	비고
1	대송(大松)	南園	4	
2	창회(蒼檜)	南園	2	전나무
3	측백(側柏)	西園	1	
4	노송(老松)	정회각 서쪽(2), 수약당 남쪽(1), 後庭 서쪽(2)	5	
5	노송(老松)	동쪽 계단	5	
6	소송(小松)	서쪽 계단(1), 분재(2)	3	
7	반송(盤松)		1	
8	중려(棧欄)	사의당	2	
9	월계(月桂)	분재	4	
10	사계(四桂)	분재(2), 작은 분재(2), 백색 분재(1)	5	
11	거상화(拒霜花)	분재	1	목부용
12	전춘라(剪春羅)	분재	1	일명 剪紅羅, 가을꽃(剪秋羅)
13	금전화(錦剪花)	분재	1	
14	추해당(秋海棠)	분재	1	해당화
15	석양화(夕陽花)	분재	1	
16	매화(梅花)	분재(2), 들(1)	3	
17	벽오동(碧梧桐)	분재	1	
18	백일홍(百日紅)		1	배롱나무, 紫薇花
19	영산홍(映山紅)	분재	2	연산군때 일본에서 수입
20	왜적촉(倭躑躅)	남쪽 계단	8	왜철쭉
21	모란(牡丹)		9	
22	산단화(山丹花)	서쪽 계단	1	산단화의 옛말, 동백나무
23	자목련(紫木蓮)	서쪽 계단	1	
24	백목련(白木蓮)	남쪽 계단	1	
25	출장화(出薔花)	서쪽 계단	1	황매화
26	금은화(金銀花)	서쪽 계단	1	인동꽃
27	금등화(金藤花)	서쪽 계단	1	능소화
28	불정화(佛頂花)	서쪽 계단(1), 남쪽 계단(1)	2	불두화
29	백두견(白杜鵑)	남쪽 계단	1	현진달래
30	정향(丁香)	서쪽 계단(2), 남쪽 계단(2)	4	수수꽃다리
31	금죽(錦竹)	서쪽 담장(1), 남쪽 계단(1)	2	개당귀
32	태호석(太湖石)		1	
33	괴석(怪石)	사의당 남쪽 계단	5	石臺(4모, 6모)에 안치, 5봉(峰) 괴석 : 4~5척
34	중괴석(中怪石), 소괴석(小怪石)	사의당 남쪽 계단	2	
35	석구(石龜)	南庭	1	등에 日影 24방위 새김

(玉臺), 석구(일영대), 곡장(曲牆), 판장(板牆), 석계(石階), 섬돌, 작은담(小垣), 누(樓), 문병(門屏) 등이 도입되었다. 특히, 괴석은 석대 위에 설치했으며, 거북모양의 형상을 띄거나 4~5척 크기의 돌로 오봉선산을 상징하였다.

선조들은 예로부터 인간 자신을 하나의 소유주로 생각하여 자기가 기거하는 곳의 특이한 경물이나 물상(物象)을 인간 삶의 형태와 연결하고자 하였다(최기수, 2004). 사의당 또한 이러한 격물치지의 관점과 와유문화(臥遊文化)가 작용되고 있는데, 선경의 이상세계 구현, 제한적인 재식을 통하여 정심수를 감상(淸賞)하는 형이상학적 작정 미학을 추적할 수 있다.

7) 서화(書畫)와 완상 기물: 기완(器院)

사의당에는 고급의 저명한 금석문 목적과 서화 등 94품을 첩으로 만들어 소장하였는데, 왕희지의 난정수계서, 구양수가 지은 글을 소식이 쓴 취옹정기, 소동파가 지은 글을 조맹부가 쓴 적벽부, 이자현의 문수원비, 안평대군의 비해당첩, 홍양호의 별서가 있던 우이동 이계구곡 대자, 이공린이 그린 난정수계도, 문무왕릉비, 진흥왕복순비, 당공자묘당비, 백련사액자 등이다. 한편, 현학금, 자명종, 석옹황 괴석, 청강석 괴석, 구리로 만든 투호, 학의 깃털로 만든 부채(白羽扇) 등 진귀한 27개 기물도 소장하며 즐겼다.

표 3. 사의당의 공간구성 체계와 조경문화

구분	공간구성 체계와 조경문화	비고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가 만달인 정명공주(1603~1685)에게 하사하여 흥만희에게 상속 · 제2대 흥종성, 제3대 흥진을 거쳐 제4대 흥양호 때 집안 쇠락 · 1743년 사의당 매각, 흥양호: 1747년 재 구입 · 제5대 흥낙원, 제6대 흥경모에게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대 530여칸 · 가사 100여칸
자리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 남부방 혼도동 이현(진고개), 목덕산 아래 정거 · 사의당(택호, 별당): 계좌정향(癸坐丁向: 북동쪽을 등진 남서방) · 온돌방과 마루, 루와 문, 행랑, 원림, 포(圃) 등을 갖추 · 조산(목덕산), 안산(도봉산), 서쪽과 동쪽(인왕산과 장원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적 사신사 구조
경관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이 트여 한양성과 교외를 바라보는 전망에 유리 · 원근 경관 차경: 목덕의 잠두봉, 백악과 낙산, 필운봉, 도봉산, 수락산, 불곡산(불암산), 모악산, 백운봉과 인수봉 등 · 한양 4대문 안팎 도읍 문화경관 부경(俯景), 4계절 풍경미 취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경, 부경, 차경 등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530여칸(약 1,750m²), 건물 100여칸 규모 · 동쪽 본채(정당과 하당), 서쪽 별당(사의당, 수약당, 징회각) · 후원과 원림: 기화이초가 어우러진 화원, 남원, 서원, 후정, 중정 · 신선풍의 아회처, 사의(꽃, 돌, 거문고, 바둑), 유와 식을 위한 원림 · 안쪽보다 2배 정도 넓은 바깥마당: 큰길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원(沁園, 공주의 원림)
조경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 소나무, 회나무, 측백나무, 반송, 종려, 월계화, 사계화, 거상화(목부용), 전춘다, 금전화, 추해당, 석양화, 매화, 벽오동, 백일홍(자미화), 영산홍, 왜철쭉, 모란, 산단화(동백), 자목련, 백목련, 출장화(황매화), 금은화(인동꽃), 금등화(능소화), 불정화(불두화), 흰진달래, 정향(수수꽃다리), 금죽(개대귀) 등 · 점경물: 태호석, 괴석, 돌거북, 석대, 석주, 옥대(玉臺), 일영대, 곡장과 판장, 석계, 섬돌, 곡원(曲垣)과 소원(小垣), 누, 문병(門屏)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천산장 고사 · 괴석: 오봉선산
식재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에 직접 심는 지종(地種)과 화분에 가꾼 분종(盆種) · 상록수 6종, 낙엽수 16종, 기타 6종 등 38종의 식물종 도입 · 1그루, 2그루, 3그루, 4그루, 5그루, 8그루, 9그루 심기 등 · 위치와 장소: 南園, 西園, 前庭, 後庭, 南庭, 園, 庭, 圃, 花階, 花塢 등 · 정심수(소나무, 전나무, 측백, 매화 등)와 분경(소나무, 매화, 영산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물치지 · 상징정원
완상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서화: 난정수계서, 취옹정기, 적벽부, 문수원비, 비혜당첩, 이계구곡 대자, 난정수계도, 문무왕릉비, 진홍왕복순비, 당공자묘당비, 백련사액자 등 · 기물: 현학금, 자명종, 괴석, 투호, 백우선(白羽扇) 등 · 분재와 괴석, 진귀한 기물 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경형 경물

특히, 풍류 및 유상곡수문화의 원류가 되는 난정수계서, 아름다운 산수문화의 정취를 노래한 취옹정기, 자연과 합일하며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신선경 세계를 읊은 적벽부, 고려시대 대표적 선원(禪院) 문수원, 8경문화를 유행시킨 인평대군의 비해당48영 등은 조경문화사적으로 의미있는 대표적 작품들이라 하겠다.

V. 결론

흥경모가 기술한 '사의당지'를 원전으로 조선 후기 경화세족이 경영한 '사의당' 저택의 입지와 공간구성 체계 그리고 조경문화를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의당(서울 중무로 진고개)은 정명공주(선조의 딸)가 흥주원과 혼인한 후 인조로부터 하사받은 대지면적 530여칸 규모(약 1,750m²)의 저택으로 조산인 목덕산(남산)과 안산인 도봉산, 그리고 서쪽과 동쪽으로 인왕산과 장원봉이 풍수적 사신사 구조를 이룬 생룡형 길처에 자리하였다.

둘째, 목덕산에 북동향하여 100여 칸 규모로 지어진 저택은 동쪽에 본채(정당과 하당)를 두고, 서쪽에 별당(사의당, 수약

당, 징회각 등)을 마련했다. 후원에는 화원을 가꾸었고, 화계를 일구어 송림이 우거진 남산을 양경(仰景)으로 즐겼다. 북쪽으로 중문밖에 긴 행랑을 두었고, 바깥마당은 채전을 일구어 버드나무가 늘어선 큰길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셋째, 화원과 화계, 그리고 화오와 섬돌이 어우러진 원림을 가꾸어 사계절 경관을 즐겼고, 정심수(소나무, 전나무, 측백, 매화 등)와 분경(盆景, 소나무, 매화, 영산홍 등), 그리고 종려나무와 태호석 등으로 이국적 정취를 즐겼다. 북쪽으로 한양성 안팎을 부감(俯瞰)할 수 있었으며, 목덕산, 백악과 낙산, 백운봉과 인수봉 등 승경을 차경했다.

넷째, 원림을 심원(沁園: 공주 소유의 원림)과 낙토로 비유하면서, 위치(南園, 西園, 前庭, 後庭, 南庭 등)와 장소(園, 庭, 圃, 花階, 花塢 등)에 따라 세분했다. 상록수 6종, 낙엽수 16종, 기타 6종 등 모두 28종이 도입되었는데, 땅에 직접 심는 지종(地種)과 화분에 가꾼 분종(盆種)으로 구분했고, 1점식, 2점식, 3점식, 4점식, 5점식, 8점식, 9점식 등 다양한 배식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태호석, 괴석, 석대, 석주, 옥대(玉臺), 석구(일영대), 곡장과 판장, 석계, 섬돌, 곡원(曲垣)과 소원(小垣), 누, 문병(門屏) 등이 도입되었는데, 화초를 새긴 석대 위에 설치된 괴

석(1석조, 2석조, 5석조 등)은 거북 형상과 오봉선산을 꾸며,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신선경의 세계를 상징화 했다.

여섯째, 현학급, 자명종, 괴석, 투호, 학 깃털로 만든 부채(白羽扇)를 비롯하여 왕희지의 난정수계서, 소식이 쓴 취옹정기, 조맹부가 쓴 적벽부, 이자현의 문수원비, 안평대군의 비해당첩, 이공린의 그린 난정수계도 등 조경문화와 관련된 명품을 소장하며 즐겼다.

일곱째, 인평대군의 궁집과 같이 왕족의 저택은 장방형 형태로 터를 잡아 일(日), 월(月) 등의 건물 형태를 취하였고, 네모 반듯한 마당을 두어 정심수(소나무, 매화나무)를 도입했으며, 기화이초가 어우러진 후원을 가꾸었는데, 같은 시기에 지어진 사의당 또한 토지이용, 건물규모와 형식, 마당과 뜰의 조성 등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추출된다.

특히, 사의당은 ① 풍수적 양택론에 입각한 자리잡기와 다채로운 경치가 펼쳐지는 승경의 거점, ② 후원의 화계와 화원 그리고 화오에 펼쳐지는 사계절 경관미학, ③ 이상향의 세계를 구현한 신선풍 정원, ④ 원근, 양부(仰俯) 경관의 차경, ⑤ 분재와 괴석 등 진귀한 경물의 실내조경과 완상, ⑥ 격물치지와 사의(四宜: 꽃, 돌, 거문고, 바둑)를 취하며 풍류를 즐기는 유(遊)와 식(息)의 조경문화를 추적할 수 있다.

주 1) 사의당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숙종이 임술년(1682)에 구해 오게 하였으나, 초목을 진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곧바로 뽑아버렸는데, 이러한 경황을 전해 들은 주상께서 선행을 칭찬하고 후원에 심어두었던 종려나무를 민가로 돌려보냈다(이종목, 2009).

주 2) 홍경모의 '관암전서' <가장기완명>에는 오봉괴석(五峰怪石)과 거북모양의 석구(石龜) 하나는 꽃나무와 대나무 사이에서 완상하던 것으로 사의당 남쪽 화계에 있었다(이종목, 2009).

인용문헌

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2009). 조선 양반의 일생. 서울: 글항아리. pp.194-195.
2. 김기주, 김성우(1989).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 조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9(1): 190.
3. 김희춘(1975). 한국의 전통과 건축. 대한건축학회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p.18.
4. 동국여지비고(1865~1883). 규장각.
5. 서유구(1764~1845). 임원경제지.
6. 신상섭(1994).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외부공간 조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2(1): 3-4.
7. 신상섭(2007).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경관 찾기. 서울: 대가출판사.
8. 안대회(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파주: 돌베개. pp.165-168.
9. 유가현, 성종상(2010). 조선후기 사가원림의 해석과 재현.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논문집. pp.112-115.
10. 이종목(2008).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한문학보. 19집: 567-590.
11. 이종목(2009).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pp.13-102.
12. 주남철(1980). 한국주택건축. 서울: 일지사. pp.54-55.
13. 주남철(2009). 한국의 정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pp.261-265.
14. 최기수(2004). 자연에서 얻는 삶과 지혜, 팔경과 구곡.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133-148.
15. 한성부지도(1900). 규장각.
16. 홍경모(1774~1851). 관암전서. 규장각.
17. 홍만선(1643~1715). 산림경제.
18. http://happybks.com/goods/detail.html?goods_code=978-89-5862-286-4&grade
19. <http://www.pusannews.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1700&key=20090827.22031203053>

원고접수: 2011년 2월 11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1년 3월 17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